

전기전자

중국 12 월 스마트폰 출하량: 폭스콘 생산 정상화 확인

● 전기전자/IT부품장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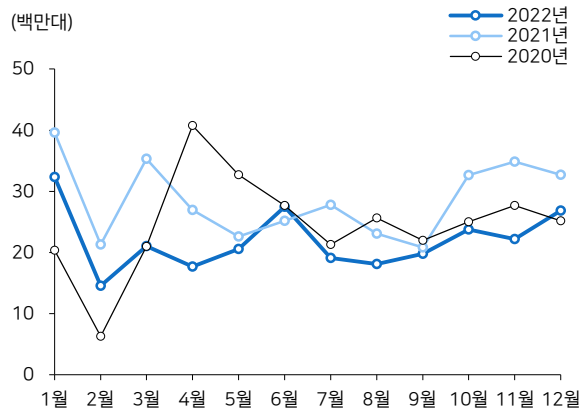
Analyst 양승수

02. 6454-4875

seungsoo.yang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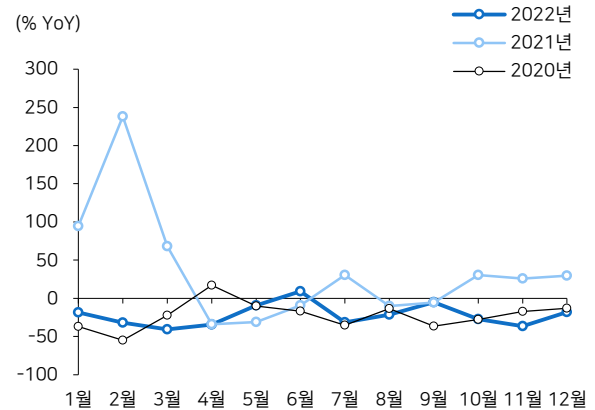
- 중국 12월 핸드셋 출하량은 약 2,789만대(+20.0% MoM, -16.5% YoY),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2,684만대(+20.8% MoM, -17.9% YoY) 기록
- Apple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Non-Local 핸드셋 출하량은 600만대(+91.1% MoM, +22.3% YoY) 기록. 폭스콘 정저우 공장 생산 정상화에 따라 전월 대비 큰 폭 반등. 점유율 기준 21.5%(전년도 12월 점유율 14.7%)
- 다만 아이폰14 출시 후 9월~12월 Non-Local 핸드셋 합산 출하량은 1,928만대로 작년 9월~12월 2,407만대 대비 19.9% 감소
- Local 브랜드의 핸드셋 출하량은 2,190만대(+19.6% MoM, -28.2% YoY) 기록. Xiaomi의 'Xiaomi13'(12월 11일 출시), Oppo의 'FineN2'(12월 23일), Vivo의 'iQoo 11 5G'(12월 8일 출시) 등 신모델 출시에 따라 전월 대비 소폭 반등. 점유율 기준 78.9%(전년도 12월 점유율 85.3%)
- 5G 핸드셋 출하량은 2,326만대(+29.8% MoM, -14.3% YoY) 기록. 아이폰 14 생산 정상화로 인해 전월 대비 반등. 전체 모바일 폰 중 5G의 비중은 83.4%(최근 1년의 평균 비중은 78.7%)
- 12월에 출시된 스마트폰 신모델은 33개. 11~12월 출시된 스마트폰 신모델은 총 70대로 9~10월 52대 대비 큰 폭 반등. 5G 신모델은 18개로 전체 스마트폰 신모델의 55% 차지
- 반면 12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2,140만대 전후를 기록. 시장에서 기대했던 재고소진은 미발생
- 예상 대비 12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높았던 이유로는 1)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자체 재고 소진을 위한 높은 가동률 유지 2) 11월말 ~ 12월 다수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3) 1월 춘절+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한 유통 채널의 재고 축적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
- 다만 그럼에도 1) 2021년 12월 출하량 3,268만대 대비 감소폭이 크고 2) 7월 이후 지속적인 재고 조정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년대비 연초 재고 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
- 긍정적인 부분은 1월 출하량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나 위드코로나와 춘절 효과로 인한 소비 회복으로 스마트폰 판매량 반등에 따른 재고소진이 예상됨
- 관건은 결국 춘절 이후 2월 실수요 반등 여부. 관련해서 선행 데이터로써 2월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, 중국의 1~2월 MLCC 수입액, 일본의 중국향 MLCC 1~2월 수출물량 반등 확인 필요
- 바닥국면에서 일부 수요 반등이 관찰될 경우 지속적인 재고조정이 진행된 만큼 부품 주문량은 가파른 재증가가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됨

그림1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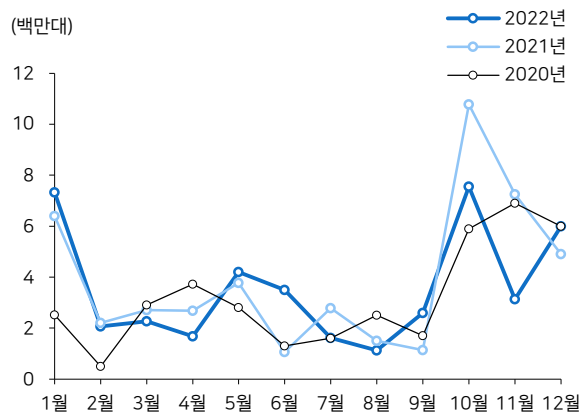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중국 스마트폰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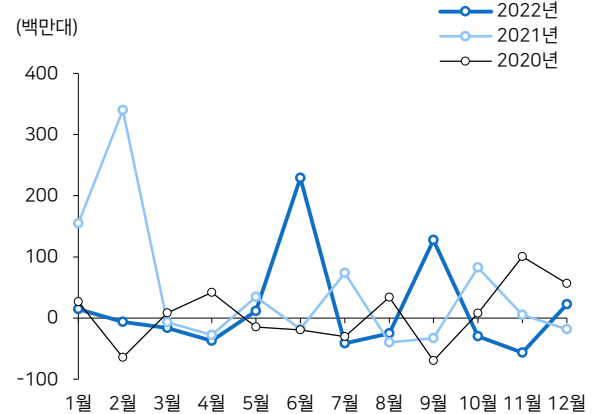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중국 Non-Local 브랜드 월별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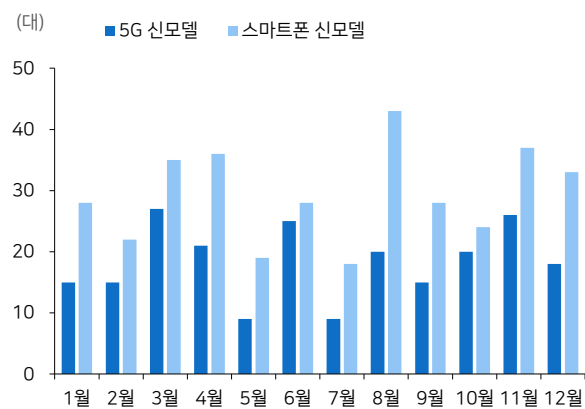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중국 Non-Local 브랜드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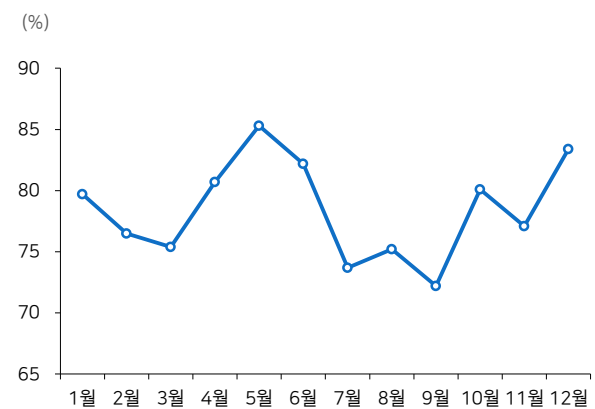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중국 내 신모델 출시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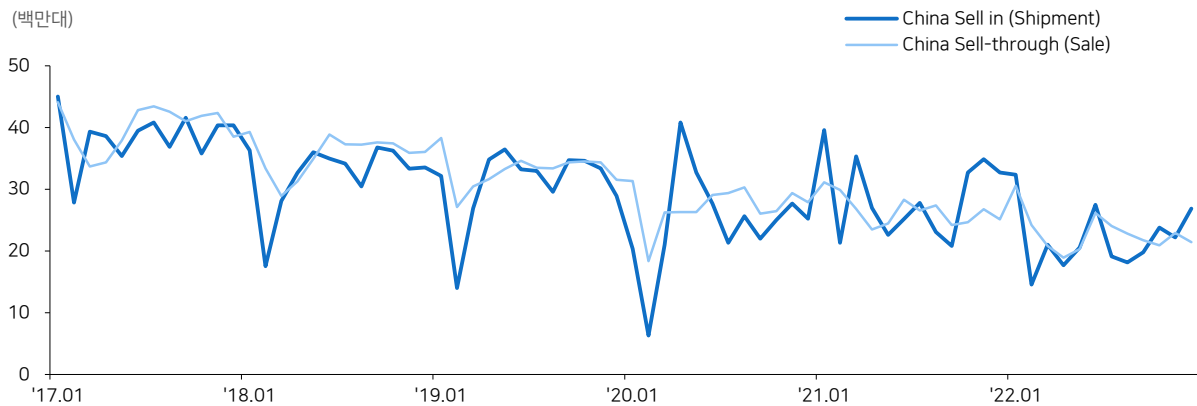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중국 모바일 폰 내 5G 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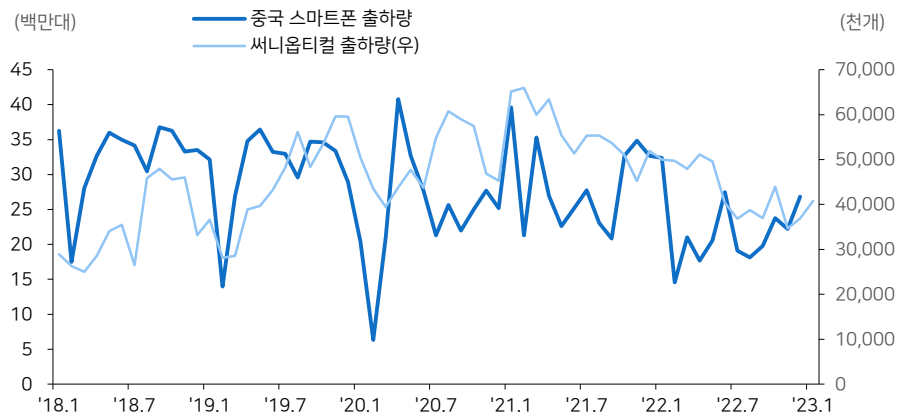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/판매량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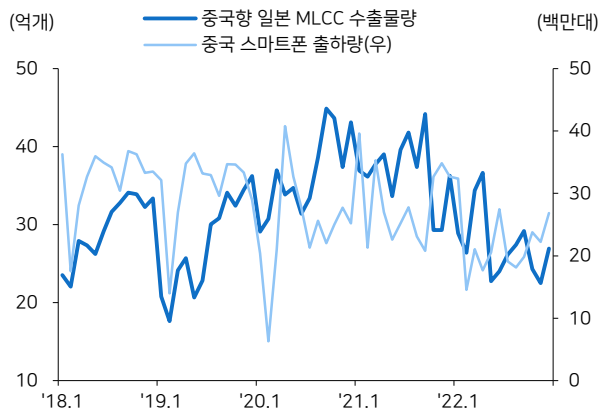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과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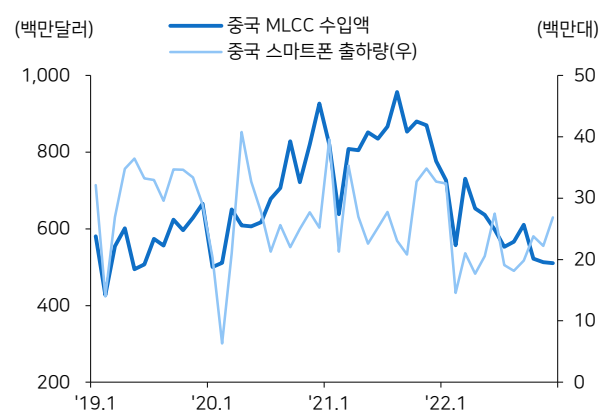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중국향 일본 MLCC 수출물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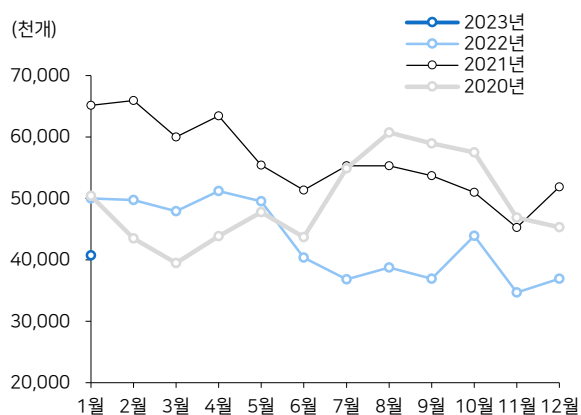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중국 MLCC 수입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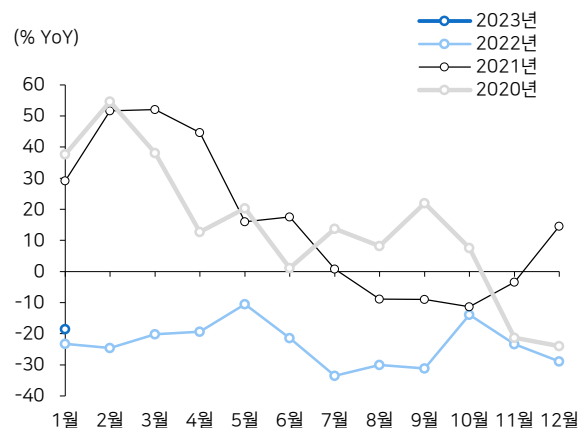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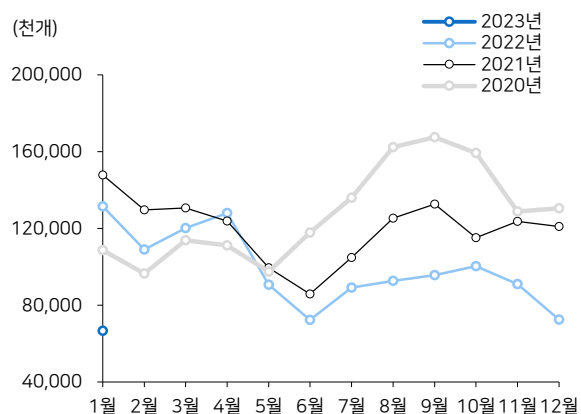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2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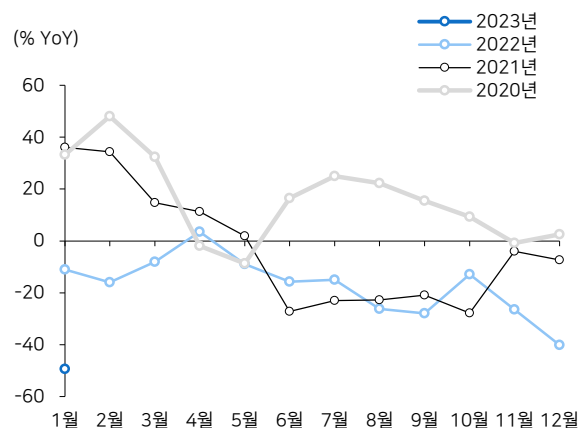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3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렌즈 출하량


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4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렌즈 출하량 YoY 성장률 비교


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외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